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가 8월 13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정치국회의에 참가하시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의를 사회하시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모든 힘을 집중하여 큰물피해를 빨리 가시고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와 세계적인 보건 위기상황의 요구에 맞게 국가비상방역체계를 더욱



행사하고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또한 최전연지역에서 발생한 비상사건으로 하여 지난 7월 24일부터 실시하였던 개성시를 비롯한 전연 지역봉쇄를 전문방역기관의 과학적인 검증과 담보에 따라 해제할것을 결정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20여일간 전연지역을 봉쇄한 이후 여전히 방역형세가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었다는것이 확증되었다고 하시면서 격리상태에서 생활상불편을 이겨내며 우리 당과 정부의 조치를 한마음으로 따라준 봉쇄지역 인민들과 폭우와 무더위속에서 지역봉쇄

엄격하게 유지하고 정연한 방역사업지휘 체계를 완비할데 대한 문제, 개성시를 비롯한 전연지역봉쇄를 해제할데 대한 문제, 당중앙위원회에 신설부서를 내올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으며 당창건 75돐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국가행사준비정형을 점검하고 해당한 대책을 연구협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근에 있는 재해성폭우와 큰물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상황에 대한 자료통보가 있었다.

장마철기간 강원도, 황북도, 황남도, 개성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농작물 피해면적은 3만 9, 296정보이며 살림집 1만 6, 680여세대와 공공건물 630여동이 파괴, 침수되고 많은 도로와 다리, 철길이 끊어지고 발전소연계가 붕괴되는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강원도 김화군, 철원군, 회양군, 창도군과 황해북도 은파군, 장풍군을 비롯하여 피해상황이 혹심한 지역의 주민들이 소개지에서 생활하면서 커다란 생활상고통을 겪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피해상황을 종합한 자료를 통보하시면서 집과 가산을 잃고 임시거처지에 의탁하여 생활하고

있는 수재민들의 형편과 고통이 이루 말할수 없을것이라고 하시며 지금과 같은 때에 다른 그 누가 아닌 우리 당이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인민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들결로 더 다가가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금 우리 국가는 세계보건위기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방역전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예상치 않게 들이닥친 자연재해라는 두개의 도전과 싸워야 할 난관에 직면해있다고 하시면서 당과 정부는 이 두개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립체적이고 공세적인 투쟁에서 세련된 령도예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이 장기화되어 여러모로 애로와 난관이 많다 해도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신속하게 조직전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각급 당조직들과 정권기관이 자기의 역할을 바로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재민들이 한지에 나앉아 당창건 75돐을 맞이하게 할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큰물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문별과업과 방도적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큰물피해 복구사업을 단순히 자연의 피해를 가시는 건설공사나 생활복원에만 귀착시키지 말고 당창건 75돐을 진정한 인민의 명절, 일심단결을 다지는 혁명적 명절로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사업으로 되도록 지향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기회에 피해지역을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 발전한 시대적수준에 맞게 새롭게 일신시키며 앞으로 자연재해나 큰물이 다시 발생한다고 해도 피해를 받지 않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적절한 위치에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계적인 악성비루스전파상황이 악화되고있는 현실은 큰물피해와 관련한 그 어떤 외부적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단아매고 방역사업을 엄격히 진행할것을 요구한다고 하시면서 피해지역 주민들과 피해복구에 동원되는 사람들속에서 방역규정을 어기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교양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피해복구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인민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언제나 함께 하고 그것을 가셔주고 지켜주는 우리 당의 혁명적 본래와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현실로 다시금 실증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당이 자기의 성스러운 의무를 다해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여야 한다고 거듭 호소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의 령도에 충실한 군민의 대단결과 협동작전으로 10월 10일까지 큰물피해복구를 기본적으로 끝내고 주민들을 안착시키기 위한 당면투쟁과업을 반영하여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무위원회 공동명령서를 시달할것을 제의하시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호소에 일치한 찬동을 표시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다음으로 비상방역전이 장기화되는데 맞게 국가적인 정연한 방역사업체계를 세우기 위한 기구적문제를 합의하였으며 새로 창설된 기구가 자기앞에 부여된 권능을 옹바로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한 군인들과 안전원, 보위원들, 로농적위군 대원들에게 당중앙의 이름으로 감사를 보냈다고 하시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다음으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창건 75돐을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국가행사준비사업정책정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행사별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점검하였으며 모든 경축행사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특색있게 준비하여 당창건 75돐에 훌륭한 선물로 내놓을수 있는 대정치축전으로 되도록 하기 위한 해당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계속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신설부서를 내올데 대한 문제를 심의결정하고 그 직능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새로 나오는 부서가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리익을 수호하고 사회의 정치적안정과 질서를 믿음직하게 유지담보하며 우리의 계급진지, 사회주의건설을 철통같이 보위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또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

조선의 혁명 백두산에서 밝아오라



조국해방 75돐을 맞는 겨레의 마음이 백두산을 우리른다.

인류문명의 려명기로부터 우리 민족의 녀의 뿌리가 되고 수호신이 되어준 조종의 산 백두산.

동방의 크지 않은 나라가 압축과 팽창의 대조속에 땅 속에서 강국으로, 약소민족에서 태양민족으로 존엄을 떨칠수 있는 힘의 원천도 백두산에 있다.

백두산에서 밝아온 민족제생의 려명으로부터 주제조선의 서광이 밝아왔고 력사의 년대기마다 존엄과 승리를 떨치며 오늘은 부강번영의 새 아침을 마중하고 있다.

자연의 려명은 동쪽에서 밝아오지만 우리 민족의 아침은 백두산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력사의 사변들을 통해 검증된 진리이다.

* * *

우리 겨레는 조국해방에 대하여 말할 때 백두산부터 생각한다.

망국으로 조락해가는 조선의 말하늘을 밝혀주고 존망의 사선에 헤매이던 민족에게 광휘의 알개를 밝혀준 주제의 태양이 백두산에서 솟아올랐기때문이다.

대포와 총칼을 휘두른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조선은 한미더로 칠칠야밤이었다. 망국노의 설움과 원한이 퍼는 물의 소나기로 대지를 두드리고 슬막하게 짓누르는 강점자의 압제에 대한 저주와 분노가 비탄의 우뢰되어 하늘을 울리던 암흑의 나날이었다.

“...아 통분하다. 우리 2천만국민이 노예로 되어 살아야 하는가 죽어야 하는가. 건국 이래 4천년국민정신이 하루밤사이에 멸망하고 만단 말인가. 비통하다. 비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빈주먹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목놓아우는 조선민족에게 일제는 《일본법률에 복종하던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고 뇌거했다.

결코 침략자의 허세가 아니었다.

일제의 《창씨개명》은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을 빼앗고 《국어》로 된 일본어는 우리 말과 글을 사멸시키고 있었으며 《황국신민화》는 백의민족의 옷자락에 먹물을 뿌리며 우리 겨레의 녀과 정신을 말살해했다.

조선은 세계지도와 력사에서 영영 없애버리려는 침략자의 오만과 폭제는 단군조선의 정기가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삼천리의 명소마다에 쇠막대를 박고 붉은 류황물까지 퍼붓는 추악하고

야만적인 폐악도 서슴지 않게 했다.

해는 솟아도 생의 빛을 줄수 없었던 날과 달들이 눈물과 고통속에 흘렀다.

독립을 불려 만국평화회의장에서 신혈도 뿌리고 의병의 총칼로 의분도 터쳐보았으며 삼천리가 일떠서서 3.1의 만세도 불렀으나 대포와 비행기, 땅크와 함선으로 광대한 대륙을 넘겨다보는 횡포한 일제에게는 약소민족의 처절한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단군의 후손들은 이대로 식민지암흑속에 쓰러져야 하는 것인가.

비애와 도탄속에서 신음하던 겨레는 백두산에서 울려 오는 항일대전의 총소리에 신심과 용기를 얻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를 정벌하는 전민항전의 총성을 백두산에 울리신 때부터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는 백두산장수에 대한 전설이 파도처럼 출렁이었다.

《백두산에 장수별 났다 백두산 장수별 삼천리를 비친다》, 《백두산에 축지법 쓰는 장수내렸다》, 《민족최고 항일령수 김일성대장 만세》...

《축지법》, 《변신술》, 《장신술》, 《분신술》을 비롯한 신비한 술법을 지니고 《승천입지》, 《동성서격》, 《일행천리》로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하시는 백두산장수, 바위를 총탄으로 되게 하고 술발울로 폭탄을 만드시며 가랑이로 군사를 나르시어 삼도왜적을 쳐부수는 《백두산호랑이》에 대한 가지가지의 전설은 삼천리를 들썩이게 하였다.

결코 신화적인 전설이 아니었다.

백두산에 주제의 해불이 울고 울렀고 《광복혁명》의 용암이 분출하여 일제의 백만관동군을 락멸처럼 불태워냈다.

백두밀림을 감싸안으며 퍼져나간 은은한 《시향기》의 곡조에 고향, 조국이 있었고 그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

는 한흙의 미시가루에 열혈의 동지애가 있었으며 백두밀림에 나래치던 언길폭탄정신에 백송의 력사이고 천동인 자력갱생이 있었다.

조국해방의 신심을 안겨준 보천보의 해불과 일행천리술로 유명한 갑부경비도로, 《호박대거리》 이야기로 통쾌한 간삼봉전투를 비롯하여 백두산기술에 새겨진 무훈담, 영웅담들은 그대로 혁혁한 항일전승사이다.

백두산은 김일성주석님이시고 주석님은 곧 백두산의 위용이시였다.

우리 민족은 어느분을 따라야 하는가, 어떤 정신과 신념을 지니고 어떻게 승리를 떨쳐야 하는가를 백두산을 바라보며 알았다.

백두산의 려명은 단순히 눈으로 바라보는 자연의 빛이 아니다.

위대한 태양의 힘이고 기상이며 후손대대가 지키고 빛내여갈 고귀한 전통이다.

외적의 총칼에 숨겨져 있는 대지에 광명을 안겨준 눈부신 빛이고 현대판노예로 짓밟힌 백의민족의 가슴마다에 조국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며 강도 일제와 싸워 만대시 승리한다는 예국사, 투쟁력, 해방열을 불어준 열화이다.

백두산의 녀과 기상을 인민에게 심어 자기 운명의 주인, 력사의 주제로 내세워준 자주이고 전민항쟁, 자력독립으로 민족의 기개를 세계에 떨친 정의이며 인민의 세상에 인민의 힘으로 인민의 새 나라를 펼친 기적이다.

민족의 태양이 안아온 백두산의 려명이 있어 존엄

의 새시대가 펼쳐지고 주제의 찬란한 미래가 밝아왔으며 조종의 산 백두산은 주제의 성산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었다.

계승이 없으면 뿌리도 전통도 영원할수 없다.

백두산에 밝아온 주제의 려명은 태양의 붉은 노을로 누리에 떨치신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서리꽃 만발한 2월에 솟아오른 백두산의 해돋이는 주체위업계승의 위대한 상징이고 새시대를 촉박하는 력사의 려명이었다.

백두산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이고 백두밀림은 그대로 고향집뜨락이었다.

안광에 처음으로 새기신 모습은 준복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항일의 모습이고 손에 먼저 익히신 것도 어머니의 권총이였기에 그이께서 새기신 총대의 사명과 조국수호의 열의도 것처럼 강렬하고 원대한 것이요 항일대전의 총성을 자장가로 들으며 성장하시였기에 조국과 민족에 대한 그의 열렬한 사랑과 원수에 대한 서리발치는 증오도 남다른것 아니던가.

또 한분은 백두산장군, 백두광명성을 맞이하게 된 것은 백두산의 행운이고 민족의 대동운이 아닐수 없었다.

주체위원의 계승은 위대한 장군님의 신념이였고 하늘이 무너진대도 변할수 없는 의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김일성종합대학시절에 주제의 붉은 노을을 누리에 떨치실 신념과 의지를 불후

의 고건적명작들인 《조선아 너를 빛내리》, 《백두의 행군길 이야기거리》로 퍼력하시였다.

주제101(2012)년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70년으로 발행되고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있는 도서 《주체시대를 빛내시며》에는 주체위원의 완성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가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몇권의 책에 담을수 없는것이 위인의 품모이고 업적이며 거룩한 한생이다.

벌써 10대의 나이에 백두산혁명전적지에서의 첫 담사행군길을 개척하시고 《천애하는 지도자동지》로 만민의 경모를 받으신 이날 주체위업계승의 만민초심으로 백두산지구를 혁명전적지로 꾸리신 이야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에서 추겨드신 자주의 해불을 주체사상탑의 봉화로 타오르게 하시어 유일사상계승의 기념비도 세우시고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도!》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어 백두의 혁명전통, 혁명정신계승의 불길이 온 사회에 나래치도록 하신 이야기들은 《주체시대를 빛내시며》가 전하는 수많은 내용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항일백두산의 붉은기울을 사랑하는 《적기가》를 즐겨 부르신 장군님이시기에 1990년대 세계를 휩쓴 정치동란의 시기에도 백두의 붉은기울을 변함없이 추겨드시고 빨제산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으로 만민을 이겨내신 것이 아니던가.

백두산 줄기줄기의 피어

린 자옥, 암록강 굽이굽이의 피어린 자옥을 선군장정의 길로 이으시고 만주벌 눈바람과 백두밀림의 긴긴밤이 전하는 만단사연을 예국헌신, 애민헌신의 숭고한 력사로 아로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였기에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을 공화국은 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도 당당히 올라섰고 부국강명의 든든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려명을 따라 아침이 오는 것은 필연이다.

백두산에 떠오른 자주와 정의의 려명이 번영의 새 아침으로 이어지는것은 시간의 무적이 아니라 진리이고 과학이다.

공화국인민이 강국의 아침을 확인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있기때문이다.

《세상에 부럼없으라》의 노래가 온 나라 인민들의 실생활로 되게 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다.

《세상에 부럼없으라!》 이것은 최고, 최강, 최상의 존엄과 국력, 문명을 바라던 민족의 숙원이 응축되어 있고 만민대계의 강성부흥을 약속하는 부름이다.

하지만 번영으로 가는 길은 결코 웃으며 가는 탄탄대로가 아니다.

시련과 헌신,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역경이고 강직한 신념과 비장한 각오로 헤쳐야 하는 힘포이다.

이 땅위에 부강번영의 새 아침이 밝아오는것을 달가와 하지 않는자들, 휘황하게 떠오르는 아침도울을 확혼

세는 몇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른것 같은 가혹한 중앙으로 공화국에 들쳐와있고 있다.

제국주의의 강권과 폭제가 매일 매 시각 몰아오는 미류의 검은구름을 흘날려 버리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의롭고 당당하게, 담차고 용맹하게 공화국을 중흥과 기적, 번혁과 비약으로 이끌어오시였다.

세계정치를 주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주정치 공화국을 《대국들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라는 기성관념을 타파하고 《대국들을 움직일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확고히 자리잡게 하였으며 《동성서격》, 《승천입지》, 《일행천리》의 빨제산신군동맹은 최강의 무기들을 조선의 손에 들어주게 하였다.

백두산에 첫 동태로부터 서해의 작은 섬에 이르기까지 천지개벽, 천도개벽의 려명정황, 영웅신화들이 태어나고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을 건설하는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동음소리는 새 아침을 앞당기는 활력으로 기세차다.

조선의 지위, 조선의 국력, 조선의 무기를 다시금 질감하며 사회주의강국을 리상이 아니라 현실의 열매로 주렁지고있다는 찬란한 목소리들이 지구의 곳곳에서 울려나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의 혁명전통을 영원히 고수하고 그 위대한 전통, 기초한 불굴의 공적정신, 백두산공적정신으로 혁명의 난국을 타개하고 개척로를 열어제끼자는것은 자신의

결심이며 확고한 의지라고 말씀하시였다.

그 신념과 의지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정면들과 《번화》를 떠들어대며 력사의 자적축을 거꾸로 돌려보려고 말하고있고 있다.

지배와 간섭, 혼돈과 무질서의 악순환은 굴종과 예속을 감수할것을 강요했고 주권국가의 붕괴와 일심단결의 와해를 목표로 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극악한 압살공

선물들이 퍼올려 쟁취한 전취물을 향유하는 세대가 아니라 고수하고 빛내이는 계승자, 백두산의 찬따운 후손이 되기 위해 정면들과진의 주력인 새세대들이 백두전구로, 백두산으로 굽이쳐간다.

평양종합방면건설장과 삼지연시구리 3단계건설장, 홍천비료련합기업소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다수확농장, 다수확작업반, 다수확분조, 다수확농장원대렬을 늘어가는 사회주의협동농을 비롯한 곳곳마다에서 자력갱생의 철토로 제재압살의 사슬을 짓부시며 기적과 번혁을 창조하는 마음들이 백두산으로 오른다.

백두산에서 바라보고 마중가는 강국의 새 아침은 참으로 눈부시다.

천하를 붉게 물들이며 솟아오르는 백두산의 장쾌한 해돋이와 함께 형성우에 비강한 힘으로 솟구쳐오르는 약동하는 천하제일강국의 새 아침, 백두명성 김정일원수님께서 안아오시는 번영의 새 아침입니다.

백두명성의 손길로 밝아오는 휘황한 아침은 민족의 넋원을 꽃피운 강국의 아침, 자주를 지향하는 인류의 넋원이 실현되는 정의의 아침으로 이어질것이다.

세상은 백두산의 려명으로 밝아오는 력사의 지평에서 동방조선의 새시대를 예감한다.

눈물의 《시일야방성대곡》이 환희의 《조국해방만세!》로 진강했던 이 땅에 《천하제일강국 만세!》가 울려 퍼질 위대한 조선의 아침을 가슴벅차게 그려본다.

김정혁

최대의 리상과 포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중학생을 하시던 때였다.

어느날 학교에서 어른을 가리는 선생이 그에게 장작 작가로 되어주실것을 기대하는 의향을 말씀하시였다.

스승의 제의를 고맙게 여기신 수령님께서서는 자신께서 문학작품을 특별히 사랑하고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몹시 동경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나라가 독립된 후에는 흑시

문학의 길을 선택하겠는지도 모르겠지만 나라를 빼앗긴 망국민의 자식으로서 나라를 찾으려고 한평생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의 뜻을 이어 장차 독립투쟁에 몸을 바치려고 결심했다고 하시였다.

그것이 자신의 최대의 리상이요 포부이며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이 곧 자신의 직업으로 펼쳐야 한다고 대답하시였다.

인민을 믿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길림감옥에서 출옥하신 후 손정도 목사의 집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목사는 그이께 일제의 만주침공이 시간문제라 되고 있는데 장차 어떻게 할 작정인가고 물음을 올리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우리가 다른 길이 있는가고, 군대를 크게 조직해가지고 일제놈들과 결판을 내자고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국권

도 정도도 자원도 다 빼앗긴 망국노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주저없이 도전해나섰다고, 무엇을 믿고? 인민을 믿고 항일전쟁을 시작하려고 결심하였다고, 인민이 국가이고 인민이 후방이며 인민이 정규군이요, 싸움이 시작되면 전민이 병사가 되어 일어난것이라고 하시며 무장항전결심을 퍼력하시였다.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일제와의 혈전을 준비하던 나날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을 동무들앞에서 처음인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두자루를 밀천으로 삼아 독립행군을 시작해보자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밀천이 있으니 이것을 자꾸 굴러 2 000자루, 2만자루가 되게 하자고 호소하시였다.

본사기자

불멸의 혁명송가와 더불어

75년이면 결코 짧지 않다. 당시의 사변을 체험한 세대들은 물론 그때에 태어난 해방동지들머리에 백발은 엮은 로세대가 되었다.

어린 일흔다섯세의 넋들을 새긴 조국해방의 날을 맞는 사람들의 감흥은 참으로 크다.

우리 민족이 8월의 폭양보다 더 뜨겁게 열광했던 민족제생의 환희는 우리 아버님의 자서전에 방불히 그려져있다.

조국해방의 날을 맞으며 나는 아버지(김원균)를 대신해 그때 일을 뒤돌아본다.

지리더 검은구름이 무겁게 드리웠던 이 땅에 마침내 밝은 해빛이 비쳐들었고 삼천리강산은

감격과 환희로 불도가니처럼 들쭉였다.

겨레의 마음속에 한가득 차고 넘친것은 조국해방의 력사적사변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열렬한 감사였다.

민족이 웨치는 《우리 민족의 영명한 지도자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명을 진감했다. 아울러 평양으로는 전국각지에 서 각계층 인민들의 소망이 담긴 편지들이 수없이 날아왔다. 청원편지들에는 《장군님을

모신 겨레의 기쁨과 만백성의 소원을 풀어주신 장군님은공의 고마움을 목에여 터치는 만세 넘친것은 조국해방의 력사적사변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열렬한 감사였다.

민족이 웨치는 《우리 민족의 영명한 지도자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명을 진감했다. 아울러 평양으로는 전국각지에 서 각계층 인민들의 소망이 담긴 편지들이 수없이 날아왔다. 청원편지들에는 《장군님을

연단에서 력사적인 개신연설을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하신 영상이 안겨왔다.

그날의 군중대회장에서 체험한 감격과 노래가사의 구절에서 받은 충동에 휩싸인 아버님은 바체없이 오선지에 창작의 붓을 힘있게 달리게 되었다.

진정한 사색과 탐구, 열정속에 낮과 밤이 이어져 얼마후 그날 나의 아버님은 한편의 가사를 접하게 됐는데 바로 《김일성장군의 노래》였다.

영명한 장군님에 대한 노래를 바라는 전체 인민의 절절한 소망과 기대를 모아 시인 리찬선생이 지은것이였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전체 인민의 열렬한 흠모와 칭송, 민족적정진과 자부심을 격조높이 구가한 시어의 구절구절을 읊어보는 아버님의 심금은 형언할수 없는 흥분으로 젖어들었다.

그의 눈앞에는 환영 군중대회가 열린 모란봉기슭 공설운동장의

송가가 태어난 후 수령님께서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보급해서는 안된다고 만류하셨지만 삼시에 온 나라 방방곡곡에 메아리쳤다.

우리 인민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새 민주조선건설에 떨쳐나섰고 가말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도 전선과 후방에서 이 노래를 높이 부르며 조국을 수호했다.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 그리고 간고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도 불멸의 혁명송가를 심장으로 부르며 모진 시련과 고난을 뜻으로 이겨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시대를 맞이했다.

세월을 넘어, 세기를 이어 끝없이 메아리치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 소신인민을 반드시 승승장구한다는 력사의 철리를 새겨준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 승리의 진군가이다.

나라의 운명을 위기에 구원하시요 민족번영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와 더불어 천세만세 영원토록 길이 빛날것이다.

추억의 펜을 달린 나는 아버님의 모습으로 피아노앞에 다가와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눈보라만리, 혈전만리의 항일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어 숨겨가던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그이에 대한 전체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의 마음이 그대로 시어가 되고 선율이 되었다.

김경민



안팎이 다른 정치간향배들의 파렴치한 행태

최근 남조선에서 부동산문제에 대한 각계층의 비난과 규탄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전에는 청와대의 참모들이 부동산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책임을 지고 집단적으로 사퇴하는 놀음이 벌어졌다고 한다.

지금 여당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리해한다》며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고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청와대참모들의 사퇴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고아내며 부동산정책추진을 담당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사퇴까지 주장해나서고있다.

이를 두고 남조선 각계에서는 재물은 개 겨물은 개 흉본다는 비난이 울려나오고 있다. 사실상 남조선에서 부동산 문제는 사회제적으로, 경제구조상 수십년간 쌓여온 악재로서 그 해결대책은 없다. 남조선의 역대 《정권》

들이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저저마다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러저러한 대책을 세웠다고 하지만 해결은커녕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악화된 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어왔다고 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것이 새롭게 시작되는것은 아니다. 부동산문제 역시 새롭게 되는것이 아니라 이전 《정권》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수정하며 이어간다. 기초가 제대로 되지 못한 집을 아무리 수리한다고 하여도 그 집이 바로설리 만 무하다.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오르고있는것을 두고 경제전문가들이 부동산문제의 기초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부정부패와 명성을 떨친 리명박 《정권》때 그 기초가 세워지고 박근혜 《정권》이 2014년에 《새누리당》이 조작해낸 《부동산3법》이 지금의 《부동산문제를 폭발시킨 근원》이라고 비난규탄하고있는것은 우연이 아니다. 현실적으로도 당시 《강남특례3법》, 《강남부자 돈벌러안기》라고 여론의 못

매를 맞던 《부동산3법》을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은 저들의 리속을 위해 강권과 전횡으로 밀어붙여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그리고는 막대한 폭리를 얻고 명명거리며 살아온 범죄 집단이 바로 다름아닌 《미래통합당》이다.

최근 남조선언론들에 의해 공개된 자료만 보더라도 당시 《부동산3법》에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7명중 49명이 부동산가 격이 높은 강남3구에 여러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있었으며 그중에서도 21명은 재건축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후에 엄청난 돈을 끌껴왔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강남3구에서 《부동산3법》의 시행으로 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수십억원의 폭리를 본것

을 비롯하여 같은 당의 수많은 자들이 엄청난 리득을 보았다고 한다.

앞에서는 《집값폭등》, 《서민절규》를 운운하며 민심을 야기시키는 《미래통합당》이 뒤에서는 부동산투기를 통해 돈벌러를 맞은셈이다. 집값상승문제로 백성들의 원망소리 높을수록 투기행위로 돈벌러를 맞은 《미래통합당》과 같은 정치사기꾼들의 아바트를 보유하고있었던 남조선현실이다.

싫은 사람이 배고픈자의 실수를 알고 한지에서 떨어진 사람이 집없는자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 집고생이란 꼬물만콩도 해보지 못한자들이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나 줄듯이 생색을 내며 부동산문제를 가지고 열을 올리는 여기에는 집값상승문제로 악화된 민심

의 반 《정부》기운을 악용하여 저들의 더러운 권력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불순한 기도가 있다는것이 정세분석가들의 평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에서는 부동산문제를 놓고 높아내는 《미래통합당》의 안팎이 다른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민생은 안중에 없이 당리당락과 권력야망에 환장한 정세기(정치와 쓰레기의 합성어)》, 《정정으로 날과 달을 보내는 정치사환군들》이라고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남조선에서 《미래통합당》 소속들과 같은 정치인의 허울을 쓴 돈벌러들, 권력미치광이들이 시퍼런 대낮에도 살판치고있어 민심의 고통과 불행은 더욱더 커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최근 남조선정치권에서 그 무슨 《4대강사업》제평가론난이 일어나 사람들을 아연케 하고있다고 한다.

사건발단은 《미래통합당》에 의해 벌어졌다고 한다. 얼마전 리명박 《정부》당시 정무수석을 한 《미래통합당》의원이 자기의 SNS를 통해 《4대강사업》을 지류와 지원으로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관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여당과 현 당국에 의해 큰물피해가 더 커졌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4대강사업》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서 4대강정찬론을 들고나오며 수해마저 정국비난소재로 쓰고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이 2013년(박근혜정부당시) 감사원감사에서도 《4대강사업》은 홍수에

주장에 토목공학전문가들과 언론들은 《4대강사업을 했던 구간은 4대강사업할 시점까지 홍수피해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서 《4대강사업》이후 특조제에 의한 부작용과 각종 부정부패사건은 슬쩍 덮어놓고 정치공세

방사업이 아닌 한반도대운하사업 재추진을 위한 성격》이라는 결론을 냈다.》며 야당의 《4대강사업》으로 홍수피해를 막았다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을 반박하고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사업》이 오히려 수해피해를 키우고있다고 적구 대응하고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남

때아닌 때에 벌어지는 《4대강사업》론난

의 《별미》로만 활용한다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비난과 저주의 눈초리를 보내고있다고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서 4대강정찬론을 들고나오며 수해마저 정국비난소재로 쓰고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이 2013년(박근혜정부당시) 감사원감사에서도 《4대강사업》은 홍수에

조신 각계와 언론들에서는 정치권이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시간만 낭비하고있다고 비난하고있다.

장마로 인한 《물폭탄》을 맞은 인민들은 피해대책과 살길을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서로 남탓만 하면서 싸움질만 하는 정치계에 민심이 등을 돌려내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본사기자 안권일

《미래없는 당》

남조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또 무슨 《당명개정》놀음을 벌려놓았다고 한다.

아무리 봐야 저들이 《미래》와 《통합》과는 인연이 없는줄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다. 이 참에 몇년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떨어져나왔던 《개혁보수신당》(가칭)때의 일이 떠올러진다.

박근혜리명박이후 《개혁보수신당》이라는 얼치기간판을 단 보수정파들이 《신당》의 《당명공모》를 한다며 인터넷에 관련글을 올렸다. 이에 수천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당》의 《당명》을 지어주었는데 그 것이 참 가관이였다.

《박근혜 리명박공명당》, 《자피잡이든당》, 《바뀌도

독갈당》, 《란해당했당》, 《이제안속는당》, 《다시새누리합칠당》, 《안변한당》, 《작전상후퇴당》, 《어차피합칠거당》, 《에라모르겠당》, 《순가락없당》, 《납골당》, 《구내식당》, 《송구리당당 송당당》...

너무 많아서 다 불러보기가 숨이 잘 지경이다. 역시 민심은 천심이다. 어떤 이름은 당명은 고사하고 당자체가 필요없다는 의미도 내포되어있다.

현 《미래통합당》의 《당명》으로 또 추천해도 아무런 손색이 없어보인다. 어디 이대뿐이였는가. 《신한국당》은 《신한국당》으로,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으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으로 불리운 것이 《미래통합당》의 추악한 매력이다.

어제 또 그랬지만 오늘도 달라진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야무리 《변신》을 꾀하며 모티프를 써도 《미래통합당》에 미래가 없다는것은 남조선세간의 평가이다.

남조선 각계의 규탄과 민심의 풍자, 조롱에도 《미래통합당》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다.

《미래통합당》이 또 새 《당명》을 달기를 원한다면 미래가 없다는 의미에서 《미래없는당》이 딱 어울린다는것이 남조선의 민심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풍자시 김삿갓이 웃노라

밖에서는 물폭탄이 쏟아져 저기서는 막막폭탄이 쏟아져

밖에서는 폭우에 집이 무너져 아우성인데 저기서는 집값이 어떻게 싸울질이구나

밖에서는 큰물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저기서는 제 리속때문에 죽일내길 하누나

벼다귀 앞에 놓고 서로 으르렁대는 미물같은 개들도 저들보단 낫겠다

개들도 닷새 되면 주인을 안다는데 저것들은 저만 알고 《국민》은 모르누나

개들은 육하면 눈치라도 보는데

저것들은 거꾸로 《국민》의 숨통 조이누나

재난은 계속인데 대책은 없고 《4대강》, 레양광 내놔내놔 하누나

민심의 억강 무너지고 살길이 캄캄한데 저기엔 민생은 없고 사설질만 일삼으니

19세기 풍자시인 김삿갓이 21세기 저 꼴을 보면 통쾌히 비웃으리라

-- 김 담배대 문 량반의 자식이 맹자책을 사들고 소리내어 읽네 그 모양 신통히 작 생긴 원숭이요 그 목소린 흡사 와글거리는 개구리라--

《변신술》



남조선언론, 시민단체들 《조선일보》의 불법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

지난 7일 남조선언론 《미디어오늘》이 전한데 의하면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노조 등 20개의 언론, 시민단체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의 불법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였다.

발언자들은 《조선일보》의 불법경영은 단순히 비판만 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정당한 사회적제재를 받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선일보》가 저지른 각종 부정부패범죄들을 폭로하면서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오랜 기간 계속될 수

있는것은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온갖 특혜를 누리 고있는데 있다고 까밝혔다. 끝으로 《언론이 남의 잘



못은 추상같이 지적하면서 자신의 범죄는 감추고 불법행위를 계속한다면 사회에 정의가 제대로 실현될수 없

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결과를 엄중히 지켜볼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런 조건하에서 토지에 대한 지배는 곧 나라의 경제와 주민의 대다수를 장악하는것이였으며 나아가서는 정치적 지배를 보장하는 계급적지초로 되었다. 바로 이런데로부터 간악한 일제는 조선의 기름진 땅을 빼앗아내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그 도구의 하나로 된것이 《동척》이였다.

이런 조건하에서 토지에 대한 지배는 곧 나라의 경제와 주민의 대다수를 장악하는것이였으며 나아가서는 정치적 지배를 보장하는 계급적지초로 되었다. 바로 이런데로부터 간악한 일제는 조선의 기름진 땅을 빼앗아내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그 도구의 하나로 된것이 《동척》이였다.

《동척》이라는것은 《동양척식회사》의 약칭으로서 조선의 토지와 산림지권탈취를 기본으로 하고 조선의 중요한 산업까지도 지배한 일제의 간악한 식민지력탈취기관이였다. 《동척》이 얼마나 악명높은 일제의 약탈도구였는가 하는것은 그 발족과 구성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동척》은 일제가 《한일합병》을 서두르던 1908년에 조직되었다. 《동척》의 조직은 이미 1907년 12월 일본제국주의 농업국가의 테두리를 벗어 나지 못한 조건에서 주민의 대부분이 토지에 목숨을 걸고사는 농민이였다.

최근 일본당국자들속에서 또다시 《적기지공격능력》보유와 관련한 주장들이 튀어나와 강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 8월초 일본수상은 자민당이 《미싸일방어제안》이라는것을 통해 《상대령역》에서도 탄도미싸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보유를 포함하여 역지력향상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것과 관련하여 신속히 실행할것이라고 력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언론, 전문가들속에서는 일본이 《적기지공격능력》보유에 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조선반도의 긴

장기 고조되고있는 현시점을 최대의 숙망인 헌법개정실현의 기회로 보고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들고나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일본은 아베가 수상으로 처음 집권한 2006년부터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집요하게 추구해왔다. 일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미싸일위협론》

문제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조선반도유사사》를 구실로 이 문제를 또다시 들고나오고있는것이다.

그리고 폐전후 오를까지 과거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한사코 거부하면서 군국주의 부활의 길로 줄달음쳐왔다. 이런 일본에게 있어서 《적기지공격능력》보유란 곧 재침의 칼을 쥐어주는것이나 같다.

현실은 일본이야말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또 하나의 주범이라는것을 다시한번 실증해주고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강한 우려심을 품고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보유에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있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보유가 조선반도와 주변정세를 크게 광고해낸것도 여기에 목적을 둔것이다. 또한 2020년 《방위백서》등을 통해 또다시 공화국의 《탄도미싸일위협》을 떠들면서 미싸일방어체계구축의 필요성을 광고해왔으며 최근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되자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합리화해나서면서 《평화헌법》개정을 추구하고있는것이다.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보유가 조선반도와 주변정세를 크게 광고해낸것도 여기에 목적을 둔것이다. 또한 2020년 《방위백서》등을 통해 또다시 공화국의 《탄도미싸일위협》을 떠들면서 미싸일방어체계구축의 필요성을 광고해왔으며 최근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되자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합리화해나서면서 《평화헌법》개정을 추구하고있는것이다.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보유가 조선반도와 주변정세를 크게 광고해낸것도 여기에 목적을 둔것이다. 또한 2020년 《방위백서》등을 통해 또다시 공화국의 《탄도미싸일위협》을 떠들면서 미싸일방어체계구축의 필요성을 광고해왔으며 최근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되자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합리화해나서면서 《평화헌법》개정을 추구하고있는것이다.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보유가 조선반도와 주변정세를 크게 광고해낸것도 여기에 목적을 둔것이다. 또한 2020년 《방위백서》등을 통해 또다시 공화국의 《탄도미싸일위협》을 떠들면서 미싸일방어체계구축의 필요성을 광고해왔으며 최근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되자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합리화해나서면서 《평화헌법》개정을 추구하고있는것이다.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보유가 조선반도와 주변정세를 크게 광고해낸것도 여기에 목적을 둔것이다. 또한 2020년 《방위백서》등을 통해 또다시 공화국의 《탄도미싸일위협》을 떠들면서 미싸일방어체계구축의 필요성을 광고해왔으며 최근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되자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합리화해나서면서 《평화헌법》개정을 추구하고있는것이다.

관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 《동척》

《동척》이라는것은 《동양척식회사》의 약칭으로서 조선의 토지와 산림지권탈취를 기본으로 하고 조선의 중요한 산업까지도 지배한 일제의 간악한 식민지력탈취기관이였다. 《동척》이 얼마나 악명높은 일제의 약탈도구였는가 하는것은 그 발족과 구성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동척》은 일제가 《한일합병》을 서두르던 1908년에 조직되었다. 《동척》의 조직은 이미 1907년 12월 일본제국주의 농업국가의 테두리를 벗어 나지 못한 조건에서 주민의 대부분이 토지에 목숨을 걸고사는 농민이였다.

이런 조건하에서 토지에 대한 지배는 곧 나라의 경제와 주민의 대다수를 장악하는것이였으며 나아가서는 정치적 지배를 보장하는 계급적지초로 되었다. 바로 이런데로부터 간악한 일제는 조선의 기름진 땅을 빼앗아내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그 도구의 하나로 된것이 《동척》이였다.

《동척》이라는것은 《동양척식회사》의 약칭으로서 조선의 토지와 산림지권탈취를 기본으로 하고 조선의 중요한 산업까지도 지배한 일제의 간악한 식민지력탈취기관이였다. 《동척》이 얼마나 악명높은 일제의 약탈도구였는가 하는것은 그 발족과 구성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동척》은 일제가 《한일합병》을 서두르던 1908년에 조직되었다. 《동척》의 조직은 이미 1907년 12월 일본제국주의 농업국가의 테두리를 벗어 나지 못한 조건에서 주민의 대부분이 토지에 목숨을 걸고사는 농민이였다.

이런 조건하에서 토지에 대한 지배는 곧 나라의 경제와 주민의 대다수를 장악하는것이였으며 나아가서는 정치적 지배를 보장하는 계급적지초로 되었다. 바로 이런데로부터 간악한 일제는 조선의 기름진 땅을 빼앗아내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그 도구의 하나로 된것이 《동척》이였다.

《동척》이라는것은 《동양척식회사》의 약칭으로서 조선의 토지와 산림지권탈취를 기본으로 하고 조선의 중요한 산업까지도 지배한 일제의 간악한 식민지력탈취기관이였다. 《동척》이 얼마나 악명높은 일제의 약탈도구였는가 하는것은 그 발족과 구성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동척》은 일제가 《한일합병》을 서두르던 1908년에 조직되었다. 《동척》의 조직은 이미 1907년 12월 일본제국주의 농업국가의 테두리를 벗어 나지 못한 조건에서 주민의 대부분이 토지에 목숨을 걸고사는 농민이였다.



《동척》이라는것은 《동양척식회사》의 약칭으로서 조선의 토지와 산림지권탈취를 기본으로 하고 조선의 중요한 산업까지도 지배한 일제의 간악한 식민지력탈취기관이였다. 《동척》이 얼마나 악명높은 일제의 약탈도구였는가 하는것은 그 발족과 구성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동척》은 일제가 《한일합병》을 서두르던 1908년에 조직되었다. 《동척》의 조직은 이미 1907년 12월 일본제국주의 농업국가의 테두리를 벗어 나지 못한 조건에서 주민의 대부분이 토지에 목숨을 걸고사는 농민이였다.

이런 조건하에서 토지에 대한 지배는 곧 나라의 경제와 주민의 대다수를 장악하는것이였으며 나아가서는 정치적 지배를 보장하는 계급적지초로 되었다. 바로 이런데로부터 간악한 일제는 조선의 기름진 땅을 빼앗아내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그 도구의 하나로 된것이 《동척》이였다.

《동척》이라는것은 《동양척식회사》의 약칭으로서 조선의 토지와 산림지권탈취를 기본으로 하고 조선의 중요한 산업까지도 지배한 일제의 간악한 식민지력탈취기관이였다. 《동척》이 얼마나 악명높은 일제의 약탈도구였는가 하는것은 그 발족과 구성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동척》은 일제가 《한일합병》을 서두르던 1908년에 조직되었다. 《동척》의 조직은 이미 1907년 12월 일본제국주의 농업국가의 테두리를 벗어 나지 못한 조건에서 주민의 대부분이 토지에 목숨을 걸고사는 농민이였다.

이런 조건하에서 토지에 대한 지배는 곧 나라의 경제와 주민의 대다수를 장악하는것이였으며 나아가서는 정치적 지배를 보장하는 계급적지초로 되었다. 바로 이런데로부터 간악한 일제는 조선의 기름진 땅을 빼앗아내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그 도구의 하나로 된것이 《동척》이였다.

《동척》이라는것은 《동양척식회사》의 약칭으로서 조선의 토지와 산림지권탈취를 기본으로 하고 조선의 중요한 산업까지도 지배한 일제의 간악한 식민지력탈취기관이였다. 《동척》이 얼마나 악명높은 일제의 약탈도구였는가 하는것은 그 발족과 구성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동척》은 일제가 《한일합병》을 서두르던 1908년에 조직되었다. 《동척》의 조직은 이미 1907년 12월 일본제국주의 농업국가의 테두리를 벗어 나지 못한 조건에서 주민의 대부분이 토지에 목숨을 걸고사는 농민이였다.

이런 조건하에서 토지에 대한 지배는 곧 나라의 경제와 주민의 대다수를 장악하는것이였으며 나아가서는 정치적 지배를 보장하는 계급적지초로 되었다. 바로 이런데로부터 간악한 일제는 조선의 기름진 땅을 빼앗아내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그 도구의 하나로 된것이 《동척》이였다.

《동척》이라는것은 《동양척식회사》의 약칭으로서 조선의 토지와 산림지권탈취를 기본으로 하고 조선의 중요한 산업까지도 지배한 일제의 간악한 식민지력탈취기관이였다. 《동척》이 얼마나 악명높은 일제의 약탈도구였는가 하는것은 그 발족과 구성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동척》은 일제가 《한일합병》을 서두르던 1908년에 조직되었다. 《동척》의 조직은 이미 1907년 12월 일본제국주의 농업국가의 테두리를 벗어 나지 못한 조건에서 주민의 대부분이 토지에 목숨을 걸고사는 농민이였다.

이런 조건하에서 토지에 대한 지배는 곧 나라의 경제와 주민의 대다수를 장악하는것이였으며 나아가서는 정치적 지배를 보장하는 계급적지초로 되었다. 바로 이런데로부터 간악한 일제는 조선의 기름진 땅을 빼앗아내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그 도구의 하나로 된것이 《동척》이였다.

《동척》이라는것은 《동양척식회사》의 약칭으로서 조선의 토지와 산림지권탈취를 기본으로 하고 조선의 중요한 산업까지도 지배한 일제의 간악한 식민지력탈취기관이였다. 《동척》이 얼마나 악명높은 일제의 약탈도구였는가 하는것은 그 발족과 구성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동척》은 일제가 《한일합병》을 서두르던 1908년에 조직되었다. 《동척》의 조직은 이미 1907년 12월 일본제국주의 농업국가의 테두리를 벗어 나지 못한 조건에서 주민의 대부분이 토지에 목숨을 걸고사는 농민이였다.

이런 조건하에서 토지에 대한 지배는 곧 나라의 경제와 주민의 대다수를 장악하는것이였으며 나아가서는 정치적 지배를 보장하는 계급적지초로 되었다. 바로 이런데로부터 간악한 일제는 조선의 기름진 땅을 빼앗아내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그 도구의 하나로 된것이 《동척》이였다.

《동척》이라는것은 《동양척식회사》의 약칭으로서 조선의 토지와 산림지권탈취를 기본으로 하고 조선의 중요한 산업까지도 지배한 일제의 간악한 식민지력탈취기관이였다. 《동척》이 얼마나 악명높은 일제의 약탈도구였는가 하는것은 그 발족과 구성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동척》은 일제가 《한일합병》을 서두르던 1908년에 조직되었다. 《동척》의 조직은 이미 1907년 12월 일본제국주의 농업국가의 테두리를 벗어 나지 못한 조건에서 주민의 대부분이 토지에 목숨을 걸고사는 농민이였다.

이런 조건하에서 토지에 대한 지배는 곧 나라의 경제와 주민의 대다수를 장악하는것이였으며 나아가서는 정치적 지배를 보장하는 계급적지초로 되었다. 바로 이런데로부터 간악한 일제는 조선의 기름진 땅을 빼앗아내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그 도구의 하나로 된것이 《동척》이였다.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들어쥐고

양덕땅에 펼쳐진 사회주의문명의 별천지

얼마전 제6차 전국로병 대회 참가자들이 풍치수려한 명당자리에 인민을 위한 종합적인 온천치료봉사기지, 다기능화된 복합체육문화휴식기지로 훌륭히 꾸러진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 즐거운 휴식의 나날을 보내었다. 온천봉사의 푸르른 숲속에 꾸러진 야외온천장과 사도를 타고 청정한 공기를 한껏 마시며 오른 대봉정점에서 휴양하는 아름다운 경치를 부감하는 료병들의 얼굴마다에는 희열이 한껏 어렸다.

어찌 전쟁로병들뿐인가. 지난 시기 전국각지에서 온 수많은 남다른 사람들이 사회주의문명의 별천지인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 온천욕도 하고 스키타기도 하면서 유쾌한 나날을 보내었다.

조형화, 예술화, 녹색화와 조상성, 편결성, 실용성을 완벽하게 실현한 현대적인 봉사시설들과 단층, 다층살림집들, 스키장, 승마공원 등이 친자연적, 친환경적으로 형성된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우리민족제일주의를 핵으로 하는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조선식건축, 조선식건설의 본보기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하

나라도 더 해주시려고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온천욕도 하고 스키와 말도 타면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향유하게 하실 구상을 안으시고 양덕군의 온천지구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할 종합적인 온천문화휴양지를 훌륭하게 개발할데 대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건설을 최단기간에 끝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활히 밝혀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고 인민군장병들과 평안남도, 강원도의 인민들은 양덕지구에서 대건설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166만여㎡에 달하는 부지에 일떠세우게 될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건설은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참으로 방대하였다. 러관구획, 치료 및 료양구획, 휴양구획, 종합봉사구획, 야외온천장구획, 스키장구획, 승마공원구획, 공공건물 및 살림집구획 등 한개 도시와 같은 특색 있는 휴양지구를 온정리일대에 건설하고 음 온천료양소 지구와 읍지구를 새롭게 꾸리며 50여km의 도로와 강하천정리, 수천동에 달하는 농

촌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을 신설 및 개건해야 하였다. 그러나 온천휴양지구건설에 진입한 군인건설자들은 착공의 첫날부터 용감무쌍한 창조정신과 용솨솨치는 힘으로 수십만㎡의 지대굴착과 성토작업, 허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기초공사를 전격적으로 벌려나갔다. 온천지대인 조건에서 발파를 할수 없어 순수 합마와 정대로 전면안반을 깨내고 깊은 감당층에서 끊임없이 굴러나오는 뜨거운 온천물을 퍼내며 지층이 나올 때까지 작업을 해야 하는 불리한 조건으로 하여 공사는 몇 품절 품이 들었으나 이들은 주저와 동요를 몰랐다.

낮과 밤이 따로없는 백열전을 벌려온 군인건설자들의 무비의 영웅적투쟁에 의해 140만여㎡에 달하는 기초굴착공사가 20여일만에 마무리된데 이어 건물기초공과리드치가 성과적으로 끝나고 불과 70여일만에 건물골조공사가 결속되었다. 건외부미공 등 건축물들의 완공을 위한 전투도 립체적으로 벌어졌다. 그뿐이 아니었다. 군인건설자들은 두달동안에 60여만㎡의 절토공사와 성토공사를 해체하고 3개의 스키주로

형성하였으며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수백㎡의 목재와 수백만장의 블록, 수천m의 흙판 등을 자체로 해결하여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였다.

산골마을을 감돌아 펼쳐진 외곽의 유리벽, 추운 겨울에 미끄러질새라 난방관까지 설치된 보행도로, 닭알같은 장소에 놓여있는 조미료벽장과 모래시계, 휴식공간에 어울리게 특색있게 꾸러진 분수터, 스키장 3주로정점의 휴식각, 고급별장같은 종업원살림집들에도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여 있었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에 떨쳐나선 평안남도, 강원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립체전을 벌려 음 온천료양소지구에 산간벽촌의 특성에 맞는 치료 및 료양호텔, 러관, 민박숙소, 자취숙소, 살림집 등을 특색있게 일떠세우고 내부건축공사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완결하였다. 부닥치는 난관과 예로를 과감히 뚫고나간 이들의 투쟁에 의해 양덕군과 법동군 상설리에 천수백세대의 살림집이 새로 일떠서 화려한 사회주의선경을 펼쳤다.

석랑온천역-온정역철길에도 온천문화휴양지와 잇닿

은 두줄기 궤도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철도로동자들의 헌신적노력이 깃들여 있었다.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짧은 기간에 수십만㎡의 성토공사와 수천m의 기초공과리드치기, 골조공사를 전부 끝낸 청년들대원들은 진부 끝낸 청년들대원들을 따라세워 큰 규모의 역사를 산간철도역으로서의 특색이 살아나게 훌륭히 완공하였다.

건설자들은 뜨거운 애국심을 안고 온천문화휴양지의 사계절풍치가 살아나도록 구획별로 원림투박의 집중성과 조형미예술성을 보장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수많은 나무와 꽃관목을 심고 잔디밭을 조성하였다.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투쟁에 의하여 자력갱생의 활로따라 사회주의의 더 밝은 앞날을 열어가는 주체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시위하며 사회주의문명의 별천지가 눈부시게 펼쳐지게 되었다.

러관, 치료호텔, 료양호텔, 야외온천장과 스키주로, 승마공원 등 모든 구성요소가 건축미학적으로 완벽하고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며 호상결합성이 정교하게 보장된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인민의 문명과 복리를 증진시켜갈 귀중한 재부로 빛나고 있다.

특색있는 체육복들을 생산한다

얼마전 우리는 각종 형태의 체육복들을 현대미가 살아나게 제작하여 체육인들과 체육애호가들의 호평을 받는 만경체육복제작소를 찾았다.

이곳 제작소에 들어서니 허봉순소장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그는 우리에게 제작소에서 국제경기에 출전하는 전문체육단선수들의 종목별로 따르는 경기복, 훈련복과 체육애호가들의 대형과 취미에 맞는 운동복들을 만들고있다고 말하였다.

특히 단체복인 경우에는 명칭과 마크를 새겨주기도 하며 수축성과 위생 안전성, 보온 및 열전도성이 보장된 훌륭한 체육복들을 제작해주고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도안실에 들어서니 여러명의 도안가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프로그램에 의한 설계와 인쇄착용능을 통한 재수정을 진행하여 얻어진 형지를 가지고 운동복도안들을 작성하고있었다.

이곳 도안실의 문성호실장은 체육복제작에서 도안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러가지 색깔과 장식효과를 리용하여 체육복을 주문한 손님들의 개성을 살려주고 몸에도 살리기 위해 사색을 거듭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이어 우리는 재봉공들이 체육복을 제작하느라 여념이 없는 생산현장을 돌아보았다.

이곳에서도 종업원들 누구나 자기들이 만든 체육복을 입고 국제무대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우승의 단상에 오를 체육인들을 그려보며 체육복제작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있었다.

생산현장을 나선 우리는 이곳 제작소에서 생산한 체육복들을 봉사하는 상점에도 들려보았다. 일반체육복은 물론 배구복과 축구복, 정구복이어서 스키복과 수영복 등이 들어찬 체육복판매대는 많은 손님들로 흥성이 고였다.

여러가지 형태와 색깔

에 현대미가 넘치게 제작된 갖가지 체육복들과 운동복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그러느라니 도안작성으로부터 웃감, 실, 무늬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기울인 이곳 제작자들의 사색과 심혈이 느껴졌다.

류경임판매원은 상점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다고, 주문이 끊길줄 모른다고 하면서 요즘 공화국기를 형상한 T셔츠형태의 운동복들을 많이 요구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평양조명기구공장에서 일한다는 한 청년은 며칠 전에 동무가 운동복을 사입은것을 보고 찾아왔는데 세련된 형태와 색깔로 하여 모든 운동복들이 자기한테 맞는것 같은데 어색것을 골라야 할지 몰라 생각중이라며 웃었다.

자기의 기호에 맞는 여러가지 형태의 특색있는 운동복들을 고르며 좋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상점을 나섰다.

본사기자 김 철



본사기자 흠범식

자체의 힘으로 생산설비의 현대화를 내밀어

공화국의 수성천종합식료공장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수십대에 달하는 생산설비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지방원료에 의거한 식료품생산토대를 보다 튼튼히 갖추어 놓았다.

공장에서는 최근 몇해 사이에 제품의 가치수를 4년전에 비해 근 3배로 높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비결은 공장에서 자력갱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생산설비의 현대화와 새 제품개발을 힘있게 밀고나간데 있다.

지난 시기 수성천종합식료공장은 단능화된 설비들을 리용하는 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다보니 로력소비가 많고 여러가지 불합리성을 가지고있었다. 이에 교훈을 찾은 공장인들은 새로운 결심을 안고 현대화계획부터 다시 세웠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현대화를 기어이 완성해야 한다는 립장에서 작성한 계획에 국내자재에 철저히 의거하여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확립한다는 내용을 조야박았다.

음료생산공정을 첫번째 현대화대상으로 선정한 사실을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사랑이나 뽕, 과자와 같은 당과류생산공정은 밀가루와

사탕가루를 비롯한 원료에 의거하는것으로 하여 자체보장조건이 어려웠다.

그러나 강병익과 도토리리 비롯하여 지방자재를 리용하는 음료생산공정을 현대화하면 적은 투자로 빠른 기간에 효과를 볼수 있기때문에 실리가 컸다.

공장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결과 이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짧은 기간에 결속되었다.

공장일꾼들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실리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사색과 실천을 거듭한 또 다른 실례가 있었다.

공장에서 탄산음료생산공정을 처음 꾸려놓았을 때였을 때, 음료생산에 필요한 탄산가스보장이 난문제로 나섰다.

기성관례대로 한다면 탄산가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단위에서 보장받아야 했는데 초보적으로 탄산해보아도 실리가 맞지 않았다.

해결방도를 찾아나간 공장일꾼들의 눈길은 어느덧 음료의 발효공정으로 돌러졌다.

이 공장에서 농마가 분해되면서 적지 않은 량의 탄산

가스가 나오고있었던 것이다. 중요한것은 그 포집과 정제공정을 어떻게 확립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전문생산단위가 아닌것으로 하여 경험과 기술도 부족하였고 공정설계와 설비보장 역시 문제였다.

처음 해보는 일인것으로 하여 새 공정확립은 쉽지 않았다. 특히 가스터과공정이 문제였다.

탄산가스의 질보장을 위해 과학연구기관들과 연계밀에 발이 닿도록 뛰어나다니 결과 공장에서 만든 탄산가스를 음료생산에 얼마든지 리용할수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게 되었다.

그러하여 쓸모없이 버리던 탄산가스가 맞고고 시원한 한 각종 탄산음료를 생산하는 기본원료로 전환되게 되었다.

첫 단계의 공정현대화가 성과적으로 결속되자 종업원들의 열의는 더욱 높아졌다. 이들은 종전의 낡은 설비를 밀어내고 과거생산공정을 현대화하였으며 사랑과 뽕생산공정을 비롯한 여러 공정들도 현대화하였다. 결과 공정은 지난날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변모되었다.

공장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새 제품개발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갔다.

몇해전 공장일꾼들은 새로 개발된 띄운콩발효식품에 대한 인민들의 평가가 그리 좋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공장일꾼들은 기술자들과 마주같이 방도를 토의하였다. 협의회과정에 띄운콩제품형식을 새롭게 해보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종전과 달리 건식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다.

그후 건식으로 된 새로운 띄운콩제품이 나왔는데 보관하기 편리하고 영양학적과도 그대로 보존되는것으로 하여 인기가 높았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공장에서는 여러가지 식료품들에 대한 인민들의 개별별수요를 장악하고 이것을 새 제품개발사업에 반영해나갔다.

어번 벌려온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단위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실천해나가는 완강한 노력이 있는 공장에서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원료, 자체보장대책을 세워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제품들을 마음껏 내다 생산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진혁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치과위생용품들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치과위생용품들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여러가지 치과위생용품들을 생산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인민들에게 질 좋은 치약들을 더 많이 안겨주기 위한 새 제품개발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미백치약, 생색치약, 풍뇌향치약, 효소치약, 황정피치약, 피로린산치약, 소금치약 등은 이발의 위생성을

보장하고 여러가지 치과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이다.

이밖에도 공장에서는 단색혁규개, 생색혁규개, 치간솔이 달린 이쭈시개, 치간솔이 달린 이쭈시개, 치간솔, 틀이세척솔 등 치과위생용품도들과 이세척알약을 비롯하여 틀이용위생용품들도 생산하고있어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변함없이 이어지는 인민적시책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인민적시책들이 수없이 실시되고있다.

전반적무상의무교육제, 전반적무상치료제, 사회보장제, 사회보장제, 정휴양제, 영애군인우대제, 의사담당구역제, 산전산후휴가제,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살림집들을 배정해주는 제도, 국가부담에 의한 어린이보육교육제도...

공화국에서 실시되고있는 모든 인민적시책들은 결코 어제도 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다.

공화국은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세계전쟁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인민적시책들을 실시하였다.

전반적무상치료제도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실시된것이다.

나라의 모든 인적, 물질자원이 전쟁승리에 총동원되어

야 했던 그때 공화국에서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한 내각결정이 채택되고 1953년 1월 1일부터는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게 되었다.

불비쉴아지는 속에서도 인민군전사들을 위한 화선휴양소가 꾸러져 전선에서 싸우던 군인들의 정휴양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이 취해지고 학생들의 교과서가 균용차에 실려 수송되는 전철같은 이야기들도 꽃피었다.

이뿐만 아니라 공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애는데 대한 법령이 채택됨으로써 오랜 세월 인민들의 삶을 짓누르던 세금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

나라가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공화국에서는 고마운 인민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었

으며 도처에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휴식터들이 더욱 늘어만 갔다.

경치 좋은 명당자리마다에 아이들의 궁전과 야영소들이 훌륭히 일떠서고 인민들의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위한 유원지와 문화정서생활기지가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고있는 것을 비롯하여 공화국에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랑의 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다.

공화국이 오래전부터 인민적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해오고있는것은 다른 나라들보다 결코 조건이 좋고 물질적 부가 많아서가 아니다.

해방직후나 가멸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물론 사회주의건설시기에 이어 오늘에 와서도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적대시살책들은 어느 한시도 멈추어선적지 않다. 오히

려 해가 갈수록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있다.

하지만 공화국은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며 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가는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새 세월에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생사를 판가리하는 첨예한 정세하에서도 인민들을 위한 사랑의 시책들만은 변함없이 실시해왔던것이다.

정녕 이것은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려는 진정인민인 나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로 하여서만 펼쳐질수 있는 자랑찬 현실인것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상상할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고마운 인민적시책들은 세인의 끝없는 경탄과 부러움을 자아내고있다.

본사기자

자고로 장애인이라고 하면 불행의 대명사로 되어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못난 자식, 병든 자식, 실업없는 자식모두를 차별없이 품에 안아 따뜻이 돌봐주고있다.

조선장애자보호령엔 중앙위원회로부터 해당 단위들의 기능과 역할이 부단히 강화되는 속에 우리 나라에서는 국제장애자의 날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과 사회적시책들을 통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계속 높이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장애자들이 국가의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속에 세상에 부러움없이 살아가고있다.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차별없이 친절하게 대하며 적극 도와주는것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기풍으로 되고 있다.

수년세월 운신하기 힘들어하는 장애인들을 등에 업고 학교길을 오가던 고마운

선생님들, 앞 못 보는 장애인들의 눈이 되고 팔과 다리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마음과 지닌 사람들과 하반신과 비로 교통을 겪는 원아가 대지를 마음껏 활보할수 있게 자기의 온갖 정성을 기울인 보건일꾼들의 아름다운 소행은 또 그 얼마이던가.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 장애인들은 높은 수준에서 훌륭히 꾸러진 장애회복 치료기관들과 시설들, 학교들과 체육문화기지를 돌아보면서, 장애인들의 희망과 랑만에 넘친 모습에서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똑똑히 보고있다.

몇해전 유럽의 여러 나라

에서 진행된 평양장애자교류단의 공연을 관람한 프랑스의 한 인사는 《조선의 장애인들이 믿기 어려운 정도로 훌륭하고 재치있는 예술적기교를 보여주는것이 놀라기만 하고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너무도 감동되어 눈물이 저절로 나왔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영국에서 한 인사는 《조선의 장애인들은 공화국의 일반근로자들과 다름없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자

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리 고있다. 관람자모두가 조선의 장애인들이 사회주의제도의 세심한 보살핌속에 어떠한 혜택을 받고있으며 서방이 조선에 대하여 얼마나 황당한 허위선전을 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었을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정녕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장애인들이 보통사람들과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지고 인민으로서 누릴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마음껏 누리려는 나라를 아바 세상에 없을것이다.

하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조선은 인류가 그려보던 (세세의 천당), (하느님의 나라)가 현실로 된 나라이다.》 《조선은 예수가 와도 할 일이 없는 나라이다.》고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정말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살고있는 우리 장애인들처럼 복받은 사람들은 없다.

장명희

희망과 랑만에 넘쳐

로 장애인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어 그들을 자주적인 사상적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지닌 인재로 길러주는 사회적정책으로 양육성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직업교육, 장애인이교육과 같은 합리적생활 조건을 보장받고있으며 보통사람들과 똑같이 예술 및 체육활동을 벌리면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수많은

들에서 진행된 평양장애자교류단의 공연을 관람한 프랑스의 한 인사는 《조선의 장애인들이 믿기 어려운 정도로 훌륭하고 재치있는 예술적기교를 보여주는것이 놀라기만 하고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너무도 감동되어 눈물이 저절로 나왔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영국에서 한 인사는 《조선의 장애인들은 공화국의 일반근로자들과 다름없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자

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리 고있다. 관람자모두가 조선의 장애인들이 사회주의제도의 세심한 보살핌속에 어떠한 혜택을 받고있으며 서방이 조선에 대하여 얼마나 황당한 허위선전을 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었을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정녕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장애인들이 보통사람들과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지고 인민으로서 누릴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마음껏 누리려는 나라를 아바 세상에 없을것이다.

하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조선은 인류가 그려보던 (세세의 천당), (하느님의 나라)가 현실로 된 나라이다.》 《조선은 예수가 와도 할 일이 없는 나라이다.》고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정말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살고있는 우리 장애인들처럼 복받은 사람들은 없다.

장명희

평양의 특이한 가로수풍경 (4)

보기 좋고 향기도 좋은 향오동나무



특음이 우거진 공화국의 거리와 마을,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곳곳에는 크고 시원스럽게 생긴 잎과 보기 좋은 나무가 한 향오동나무를 쉽게 볼 수 있다.

추위에도 비교적 잘 견디는 것으로 하여 향오동나무는 그 어디에서나 잘 자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우리 나라에는 향오동이라고 하는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 이 나무는 보기도 좋고 향기도 매우 좋다고 교시하시였다.



라선지구의 다양한 생태계 (1)

라선철새보호구



공화국의 동북부에 위치한 라선지구에 국제적으로 의의를 가지는 라선철새보호구와 알섬바다새번식보호구, 우암물개보호구들이 있다. 라선철새보호구는 만포와 동변포, 서변포호수들과 진멸, 갈밭과 논밭, 강어구와 삼각주 등 다양한 습지형태들로 이루어진 두만강하구의 3 200여정방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있으며 이곳 보호구에서는 지금

민족회화계의 재사들과 그 유산

자기의 고유한 화풍을 창조한 안건

15세기 중엽 대표적인 화가의 한사람인 안건의 산수화를 특별히 잘 그렸으며 수많은 인물화, 상상화, 사군자도 그렸다. 그는 내외의 이름난 명화들을 많이 보고 연구하면서 요점을 체득하고 장점을 취사선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기의 고유한 화풍을 창조하였다.

여주에 주의가 둘러진 그의 작품들은 당시 화가들속에서 커다란 인기를 끌었으며 회화발전엔 큰 기여를 하였다. 그의 작품으로는 《청산백운도》, 《꿈에 본 동산》(《몽유도원도》), 《적벽도》, 《룡》, 《어부》 등과 사시도들이 알려져있다. 안건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전해오고있는 《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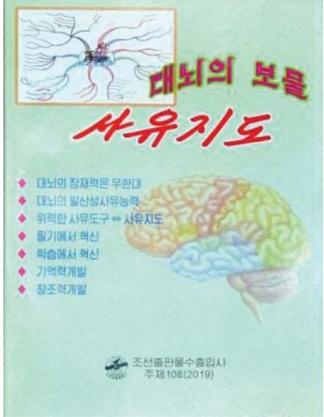
본 동산》은 조선봉건왕조의 왕자였던 리용이 꿈에서 보았다는 복숭아동산의 경치를 상상하여 그린 풍경화이다. 안건의 작품들은 대상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표현력과 힘 있고 아름다운 필치, 풍부한 정서가 잘 나타나있는것으로 하여 오늘날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되고있다.

무더위때 주의해야 할 질병환자들

—당뇨병환자
—심장질환환자
—신장질환환자
—고혈압환자
—폐질환환자
—간질환환자
—신경계질환환자
—소화기계질환환자
—신경계질환환자
—소화기계질환환자
—신경계질환환자
—소화기계질환환자
—신경계질환환자
—소화기계질환환자
—신경계질환환자
—소화기계질환환자

흥미있는 사유지도의 세계

최근 공화국의 조선출판사 《대뇌의 보물 사유지도》가 사람들속에서 예뻐되고있다. 도서는 사유지도(Mind Map, iMind Map)의 개념과 그리기규칙, 응용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있다. 또한 여러가지 주제의 사유지도들을 삽입하여 인식효과를 높였으며 독자들이 책을 보면서 자신이 직접 단순한 단계까지의 사유지도를 정확히 그릴수 있게 연습항목을 따로 설정하였다.



《룡》(안건 작)

의사와 약제사

의사와 약제사가 같이 앉아 낚시질을 했는데 만나칠이 넘도록 고기가 물리지 않았다. 의사: 《고기들이 미끼를 손에 힘주어 잡았다. 《기흥군!》 《부위님!》 말없는 가운데 두 사나이의 숭볼같은 눈길이크게 웃었다. 남상덕이 권총을 뽑아들었다. 《병사들, 나의 지휘를 받으라. 무기고를 털어 무장하고 원수를 맞받아나가자!》 무장한 병사들은 《와!》 함성을 지르며 정문을 향하여 달려나갔다. 애병들이 황급히 총을 쏘았다. 드디어 치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붕괴한 군인들의 눈에서는 불길이 날랐다. 그들은 생사를 가리지 않았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무엇을 겁내랴. 애병들의 느린 시체가 병영주변에 너저분하게 깔렸다. 거리에 펼쳐나선 그들을 보고 또 한무리의 애병들이 총자루를 내던지고 팔뚝으로 불뿔이 내뿜기 시작했다. 일부 병사들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홀어지지 말라!》 부위 남상덕이 호령했다. 잠시 총소리가 뜸해졌다. 격진위의 정적... 《어디 상한데 없나?》 남상덕이 권총을 바라보

왜적을 치자 (3)

권기흥은 마음이 언짢아져 자리를 피했다. 그의 눈곱에도 까타복을 눈물이 펴 들었다. 이 시각 남산에 있는 조선주둔 왜놈군사령관 하세가와의 집에서는 조선군대해산을 통고하는 시위대 부대장들의 회의가 진행되고있었다. 《실상 조선황실의 빈약한 재정으로 현재의 군대수를 유지할수 없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요. 그러나 장교제군은 안심해도 좋습니다. 사병들은 정리되더라도 장교제군들의 생활은 담보될것입니다. 에- 이포통감께선 앞으로 장교양성에 주로 힘을 쏟으십시오.》 누군가 뒤에서 의자를 빼격격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명백히 말해주시오. 조선군대의 정령이요, 해산이요?》 하세가와는 그를 매서운 눈초리로 한참 쏘아보더니 칼자루로 마루를 팡 짚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직도 모르겠는가?》 그는 칼자루를 꼭 쥐고 장

며 칼을 뽑아 결의 바위를 내리쳤다. 칼날 부러지는 아찔러운 쇠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찢었다. 《왜놈들이 병영을 둘러싼다.》 누군가 낮으나 날카롭게 소리질렀다. 병영담당너머로 번득이는 총창들이 보였다. 목이 길쭉한 안경쟁이 왜놈교관이 무기창고앞에 버리고 서서 독살스럽게 조소를 떠우고 조선군사들을 주시했다. 이 순간 권기흥은 숨이 막히고 가슴이 지쳐들었다. 《나라를 지키자고 군복을 입은 내가 이렇게 손에서 총을 놓아야 하는가! 한 군동이씩 고인 우리가 이런 굴욕을 당하고도 조상의 나라를 뚫고다니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질노릇이었다. 그는 왜놈들이 미웠다. 씹어삼키고싶도록 미웠다. 왜놈들이 아니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조정의 매국역적들도 미웠다. 찢어발기고싶도록 미웠다. 이때 대대장의 방에서 심상찮은 한방의 총소리가 울렸다. 뒤미처 대대장실에서 군사 하나가 허둥거리며 달려나오더니 비통스럽게 소리를 질렀다. 《대대장님이, 대대장님이 자결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속에 팽팽하게 조여졌던 금선은 드디어 끊어지고말았다. 권기흥의 정수리로 피가 샅리고 주먹이 으스러지게 쥐어졌다. 《이 흉포한 족발이 왜놈들이, 조선사람이 다 죽은줄 아느냐?》 겁에 질린 왜놈교관은 뒤걸음질치면서 칼집에 손을 가져갔다. 그러나 놈은 미처 칼을 뽑지 못한채 처음에는 머리가, 다음에는 몸통아래가 땅에 떨어져 콩 소리를 내었다. 권기흥은 왜놈의 피가 흐르는 칼을 쳐들며 부르짖었다. 《형제들, 이래도 참을렌가? 망국노로 더럽게 살것는가, 의로운 군사답게 싸우라



그는 무기고앞에 버리고 선 왜놈교관에게로 육박했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증오와 분노로 험상궂게 이그러졌다. 《모야?》 죽겠는가? 《싸우자!》 《왜놈을 치자!》 《왜놈을 쳐라!》 격노한 병사들이 호응해나섰다. 부위 남상덕이 권기흥의